5 자유연제 I

급성 화상창상에 Acticoat 사용의 임상적 경험

포천중문의대 분당차병원 성형외과

김 동 철·송 재 용

(연구목적) Silver 창상드레싱 제재로 새로 개발된 Acticoat는 nanocrystalline silver antibacterial barrier로 소개되었으며, 이 제재는 화상창상 감염의 조절 및 예방에 효과가 좋으며 3일 이상의 장시간 진균 약효가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자들은 급성 화상 창상 치료시에 ActicoatTM를 이용하여 드레싱을 하였으며, 이의 사용으로 인한 화상 창상치유에 미치는 치료 결과를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화상창상을 생리식염수로 세척한 후 Acticoat를 증류수에 적신후 국소 도포하여 사용하였다. 창상에 따라 습윤환경 조성을 위해 Op site ⓡ 혹은 Tegaderm ⓡ 등으로 overdressing을 하여주어 Acticoat hydrodressing을 시행하였다. 드레싱 교환은 2-4일마다 시행하였다. 부분층 화상창상에서 수상 후 5-7일까지 사용하였으며, 전층 화상창상의 경우는 2주 사용하였고, 이후 창상감염이 지속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계속 사용하였다. 창상 감염의 조절 및 창상치유 양상을 조사하였으며, 창상치유 평가(wound assessments)는 치유 일짜(healing date), 통증의 정도, 합병증, 치유된 창상의 외양 등을 조사하여 보았다. **(결과)** 총 68명의 급성화상환자에서 부분층 화상환자 66예와 3도 이상의 전층 화상환자 2예를 경험하였다. 남환 38명, 여환 30명이었다. 2도~중간2도 화상 깊이의 66예 환자에서 창상치유의 양상이 양호하였고 평균 치유일이 12일이었고, 심부 2-3도 화상 환자 2예에서는 창상의 염증이 적고, 수술 후 경과도 양호하며, 피부이식부 주변에 비후성 반흔의 소견이 적어 비교적 잘 치유된 소견을 보였다. 부분층 화상창상에서 이의 사용 후 창상 염증소견은 비교적 빨리 소실되었으며, 창상 치유에 걸리는 시간이 예상된 창상치유기간 보다 1-3일 빠른 경과를 보였다. 특히 소아에서의 사용에서 드레싱이 간편하고 드레싱 교환시 통증이 적어 사용이 용이하였다. Acticoat사용 후 이로 인한 합병증은 없었으며, 6예에서 가피탈락이 지연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결론)** 급성 화상환자의 초기 화상창상 드레싱에 Acticoat을 사용하여 치료한 결과 부분층 화상창상 감염조절과 예방에 비교적 좋은 효과를 보였으며, 전신 또는 국소 합병증이 없이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소아화상환자에서의 사용시 드레싱 교환이 용이하고 통증도 적었다.